

팩트체크 + 보고서		
특별판	발행일: 2020년 3월 16일(월)	
연락처	(02) 741-7662	www.medianetwork.kr FAX (02) 741-7663
에디터	황우섭 (E-mail : mirifica@naver.com)	

2020 총선 방송보도 분석⑤

- 분석대상 : 9개 방송사 TV 메인뉴스 / 분석기간 : 3.8~3.14 -

요 약 문

3월 8일(일)부터 3월 14일(토)까지 9개 방송사 TV 메인뉴스에서 보도된 정당 공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참여 관련 뉴스 총 88건을 분석한 결과 정당공천이 46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참여 결정이 42건으로 나타났다.

정당공천 관련 기사의 경우 주로 미래통합당의 공천관련 내용들이 주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정당 상호 간 공격과 방어 등 갈등이 많지는 않았으나 오히려 정당 내 특히 미래통합당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관련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기사를 통해 각 정당들이 재현되는 방식, 방송사별 내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팬덤정치나 공천 잡음과 같은 표현들이 소수 등장하기는 했으나 미래통합당 내 갈등이 공천 번복, 잡음, 후유증, 힘겨루기, 재활용 공천, 사천 등 다양한 표현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별로도 이러한 부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지상파 SBS, 종합편성채널 중 TV조선과 JTBC 등 일부 언론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미래통합당의 갈등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참여 결정에 대한 기사의 경우 선거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비판이 존재했으나 이는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과도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비례정당 참여 자체에 대한 비판의 경우 미래통합당의 ‘말바꾸기’, ‘내로남불’ 등의 비판 인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내 이견, 비례정당 참여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우려가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 창당 관련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정당들이 ‘꼼수’, ‘가짜정당’, ‘위성정당’, ‘국민 투표권 침해’ 등과 같이 비판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인용되던 것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참여 결정 관련 기사에서는 비판 자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고 있었다.

요 약 문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을 중심으로 미래통합당의 비판이 기사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이해득실, 의석 수 계산, 당 내 이견 등 정의당의 불참선언을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창당과 플랫폼 참여라는 형식이 다르기는 하나 비례용 정당이라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을 다루는 언론사들의 균형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1. 개요

본 총선 방송보도 분석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방송뉴스를 중심으로 총선 관련 뉴스를 분석하여 총선 관련 방송보도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분석대상은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 채널 등 9개 방송사 TV 메인뉴스의 총선 관련 기사이다. 보도전문 채널의 경우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메인뉴스가 동일한 시간대에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의 기사가 홈페이지, 포털 등에 정리되어 있지 않아 포털(네이버)에 각 방송사 메인뉴스와 함께 게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분석기간은 3월 8일(일)부터 3월 14일(토)까지 일주일 동안 각 방송사 TV 메인뉴스에서 보도된 각 정당의 공천 관련 기사와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 관련 기사를 분석하였다.

[표 1] 방송사 별 기사 건수

방송사		건 수	비중
지상파	KBS	8	9.1%
	MBC	11	12.5%
	SBS	9	10.2%
보도전문	연합뉴스TV	5	5.7%
	YTN	3	3.4%
종합편성 채널	TV조선	15	17.0%
	JTBC	10	11.4%
	채널A	11	12.5%
	MBN	16	18.2%
합계		88	100.0%

[표 2] 주요 이슈별 기사 건 수

	N	비중
정당 공천	46	52.3%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	42	47.7%

2. 정당 공천

1) 기사 내 정당 언급 수

정당 공천 관련 기사의 경우 정당 언급 수는 더불어민주당 16건, 미래통합당 39건으로 미래통합당이 더 많은 모습을 보였다. 기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컷오프, 탈락 후보의 무소속 출마,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 사퇴 등 주로 미래통합당의 공천 관련 갈등이 주요 내용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정당 별 기사 내 언급 수

	N	Percent
더불어민주당	16	28.1%
미래통합당	39	68.4%
기타	2	3.6%
합계	57	100.0%

2) 주요 프레임

주요 프레임을 살펴보면 대부분 무프레임으로 나타났으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피격 프레임의 경우 모두 공천 탈락자들의 정당에 대한 비판이 주요 내용을 구성되었다.

[표 4] 정당별 주요 프레임

	피격	무프레임	합계
더불어민주당	2	25	27
미래통합당	1	49	50
국민의당	0	3	3
정의당	0	3	3
합계	3	80	83

3) 심층분석

정당 공천 관련 기사들은 대부분 미래통합당의 공천 결과를 중심 내용으로 달고 있었으며 특히 공천관리위원회와 황교안 대표와의 갈등, 공천관리위원장 사퇴, 컷오프 탈락 후보들의 반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도 동일하게 공천 관련 비판과 잡음 관련 내용들이 있으나 비중은 훨씬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5]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공천 기사를 구성하는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팬덤 정치, 공천 잡음 친문공천	공천 번복, 공천 잡음, 후유증 재검토 요구, 힘겨루기, 재활용 공천, 사천 공천 무효화
대결, 리턴매치	

언론사별 공천 관련 기사의 주요 내용은 KBS, MBC의 경우 미래통합당 관련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미래통합당의 경우 공천 탈락자 반발과 공천 관련 당내 갈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일부 탈락자들의 반발 관련 내용이 존재하고 있으나 대부분 단순 공천 결과 전달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공천 잡음뿐 아니라 보수 방송사를 중심으로 팬덤정치, 친문공천과 같은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미래통합당의 경우 번복, 후유증, 힘겨루기 등 당 내 갈등과 관련된 표현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대결구도를 중심으로 공천관련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으나 대결과 갈등적 요소가 중심이 되고 있는 부분은 변함이 없으며 특히 미래한국당을 중심으로 관련 보도들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표 6] 언론사별 공천 관련 기사의 주요 내용

언론사	주요내용
K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통합당 공천 번복 홍준표 전 대표 대구 출마 선언, 미래통합당 비판
M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통합당 공천 후유증, 갈등 공천 탈락자 반발 미래한국당 공천신청자 500명
S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의원 탈락, 소신파 위축 우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 사퇴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공천 결과
연합뉴스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여성 우대 공염불 미래통합당 공천 잡음, 논란
YT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통합당 공천 반발, 무소속 출마 가시화
TV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 사퇴 소신파 금태섭 의원 탈락, 선거 개입 의혹 연루 황운하 공천 미래통합당 공천 파열음 미래한국당 비례공천 더불어민주당 공천 상황 분석, 미래통합당 공천 상황 분석
JT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진표 확정 판세 분석

언론사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통합당 공천 결과 갈등 ▪ 민주당, 미래통합당 공천 탈락자 반발 ▪ 민주당 공천결과
채널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당 공천 갈등 ▪ 미래통합당 공천 갈등
MB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명하 변호사 미래한국당 공천 신청 ▪ 미래통합당 공천 잡음,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 사퇴 ▪ 더불어민주당 친문공천 논란

3.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

1) 기사 내 언급 수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관련 기사에서 주요 정당의 언급 횟수는 더불어민주당이 42건이었으며 다른 정당의 경우 등장하지 않았다. 기사 내 언급 수의 경우 단순 논평은 제외하고 '행위의 주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2) 주요 프레임

정당별 주요 프레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공격과 피격이 각각 17건으로 나타났으나 미래통합당의 경우 공격이 9건, 피격이 4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면 정의당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에 대한 비판이 많아 공격이 14건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의 공격 프레임의 경우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으로 인한 미래통합당 의석 수 증가에 대한 비판이, 피격의 경우 과거 미래한국당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례정당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룬다. 반면 미래통합당의 경우 공격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참여에 대한 비판이, 피격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참여 근거로 활용되는 미래한국당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의 경우 비례정당에 대한 비판이 공격의 주된 내용이었으며 피격은 비례정당 불참 선언으로 인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이 주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표 7] 정당별 주요 프레임

	공격	피격	무프레임	합계
더불어민주당	17	17	31	65
미래통합당	9	4	12	25
정의당	14	7	5	26
기타	2	0	1	3
합계	42	28	49	119

3) 심층분석

비례정당 참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에 비판적인 내용은 선거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는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 창당과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으로 보기 힘들다. 그 외 내용의 경우 당 내 이견, 반대 의원들의 소탐대실 우려, 중도층 이탈 우려 등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말바꾸기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으나 등장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며 오히려 국민의당에 대한 통합제안 내용이 관련 기사에서 함께 등장하기도 했다.

이전 미래한국당 창당 관련 기사에서 ‘꼼수’, ‘가짜 정당’, ‘위성 정당’, ‘투표권 침해’ 등과 같은 표현들이 등장했던 부분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관련 기사들은 이에 대한 평가를 거의 볼 수 없으며 미래통합당의 비판 내용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동일 사안에 대한 균형성에 비판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8]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관련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범진보 비례정당 선거법 개정 취지 무색 훼손 당내 이견, 소탐대실 우려 전 당원 투표, 중도층 이탈 우려	말바꾸기 비판 국민의당 통합 제안
의석 수 예상	

이를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당원투표를 통한 비례정당 참여 결정, 이해찬 대표의 비례정당 참여 이유에 대한 주장, 정의당의 비판과 참여 거부 등의 내용들이 동일하게 대부분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경우 일부 지상파에서 말바꾸기에 대한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의 비판이 짧게 언급되고 있었으며 보도전문 채널의 경우 민주당 관련 정보를 전달할 뿐 이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평가는 크게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미래한국당 출범시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들의 비판이 주요 내용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인용을 통해 미래한국당에 대한 비판들이 여과 없이 보도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동일한 사안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이에 대한 비판에 더 적은 비중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9] 방송사별 정당별 입장과 이슈에 대한 해석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미래통합당
K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례정당 참여, 범진보 설득 말바꾼 민주당, 당내 이견 전 당원 투표 결과, 정의당 불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례정당 참여 비판
M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당 당내 진통 비례정당 참여, 앞 순번 소수당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의당 통합 제안 비례정당 참여 비판
S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법 개정 취지 무색 당 내 이견 정의당 합류 거절 	
연합뉴스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례정당 참여 확정 정의당 참여 거절 	
YT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당원 찬반투표 이재명, 비례정당 참여 반대 	
TV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례정당 참여 확정 말바꾸기 논란 중도층 이탈 우려 민주당, 정의당 연대 파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원투표 '책임회피' 비판
JT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당원 투표 결정 당 내 이견 정의당 불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반하장 비판
채널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례정당 참여, 말바꾸기 정의당 불참 선언 현역의원 비례정당 파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더불어민주당 말바꾸기 비판 고발 철회 요구
MB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례정당 참여 결정 당 내 이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바꾸기 비판

끝.

※참고 : 이 보고서는 미디어연대의 분석자료입니다. 자유롭게 활용하시되, 인용시 '미디어연대 자료'임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황우섭 에디터의 책임 하에 분석된 내용으로 미디어연대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후원 : 저희 미디어연대와 함께 해주십시오. 후원해주신 분들에게는 미디어연대 <팩트체크+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후원은 미디어연대 홈페이지 (www.medianetwork.kr)에서 '후원하기'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